

‘장미 대선’ 경선 1번지 광주, 선거 열기에 ‘후끈’

대선 좌우합 최대 승부처
각 당 후보·캠프 대거 몰려
사무실 임대·숙박·식당 등
지역 상권도 모처럼 활기

이번 주말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이 열리는 광주와 전남이 경선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각 대선 후보들과 선거 캠프 측이 경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 호남 기선제압에 ‘대권으로 가는 길’이라는 포석 아래 광주에 캠프 관계자들을 총집결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상무지구 등 신도심을 중심으로 선거 캠프가 들어오고, 식당과 호텔 등 관련 업소는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 또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북적거리며 광주가 마치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바뀐 듯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경선 후보 측은 송영길 총괄선대본부장과 김상곤 선대위원장, 강기정 캠프 상황실장 등 주요 호남 인사들이 지역에 총출동해 결전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선거 캠프 이동상황실을 광주에 배치해 각 지역위원회별 조직 담당자와 활동가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한 상무지구와 첨단 등 주요 거점별로 이른 새벽부터 자정까지 매일 시간대별로 조직가동 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

안희정 경선 후보측은 선거캠프와 지지단체인 ‘더좋은 민주주의 광주·전남포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바다 민심을 넓혀가고 있다.

안 후보 지지 의원멘토단인 박영선·이철하·박용진·기동민 의원 등도 23일부터 광주·전남에 등지를 틀고 지역 주요 인사들과 접촉을 늘려가며 안 후보 지지세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로 호남의 아권분열 통합적 입자, 본선에서의 확장성 등을 강조하며 가장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도 자발적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번 주중 호남에서 출퇴근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후보 측은 정성호·유승희·김병욱 의원 등 당내 지지의원들이 22일부터 광주에 거점을 마련하고 이 후보의 적폐정산을 위한 진짜 정권교체를 강조하면서 호남 민심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22일 밤부터 광주에서 거리투어를 하며 호남 청년과들의 소통을 넓힌다. 또한, 23일에는 광주·전남지역 발전 정책발표와 농민들과의 농업정책 간담회, 지방분권개헌 촉구대회, 금융노동간부 간담회 등 광폭 행보를 벌이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당 = 25일 광주에서 호남권역 경선 투표를 하는 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각 후보 선거캠프와 국민의당 각 지역위원회는 경선 방식을 고려한 지역밀착형 선거운동에 주력하며, 경선 참여 후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각 후보별 지지 현역의원의 지역위원회와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첫 광주 경선 승리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23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북지역을 돌며 지지를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후보는 23일 보성과 순천시 등을 돌며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탄탄한 전남지역을 공략할 예정이다.

박주선 후보 측은 지지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지세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자체적으로 호남 내 인지도와 지지도가 가장 뛰어나다는 분석을 토대로 지지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경선후보 4인의 출사표 ▶3면
대선후보 토론-국민의당 안철수 ▶5면

그림편지
김해성-인도 델리 ▶18면

1073일의 기다림... 세월호 올라온다



책킹바지선 밤샘 인양작업 22일 오후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세월호 인양 구역에서 책킹바지선에 불이 환하게 켜진 채 야간 시험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진도 맹골수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시험 인양 성공...해저면에서 1m 끌어올려 본인양 6~8시간...빠르면 아침에 수면 위로

세월호 시험인양이 성공했다. 22일 오전 10시에 시험인양에 들어간지 5시간30분 만에 세월호 선체를 바다 밑에서 약 1m가량 들어올린 것이다. 〈관련기사 2·6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세월호 선체가 해저면에서 약 1m 인양됐다고 밝혔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잠수사를 통한 육안확인이 진행 중”이라며 “확인 결과 선체가 해저면에서 든 것이 확인되면, 이후 선체의 수평을 맞추는 하중조절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험인양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이후 기상 등을 확인해 본 인양 추진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시험인양 중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다만, 선체 균형 잡기 등 정밀한 조정 작업이 진행 중으로, 만일 본인양을 추진하면 작업은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본인양에 착수하면 세월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시간은 6~8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바닷속에 있던 세월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23일 새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와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는 이날 오전 8시30분이 돼서야 세월호 시험인양을 오전 10시에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험 인양은 세월호를 해저면에서 1~2m 끌어올리는 작업이다.

책킹바지선과 세월호 선체를 연결한 인양줄(와이어)에 단계적으로 천천히 힘을 주는 작업을 벌여 낮 12시20분께 인장력 시험을 완료했다. 이후 각 인양줄에 걸리는 인장력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공정과 세월호 선체를 해저면에서 이격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했다.

현재 세월호는 시험인양 과정에서 선체가 약간 기울어진 상태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속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들어올린 선체를 다시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이 단장은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알립니다

정명화·손열음·신지아 트리오 광주공연 전석 매진 감사합니다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기념
28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광주일보사가 창사 65주년과 호남 예술제 62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기획한 정명화·손열음·신지아 명품 트리오 광주공연이 전석 매진됐습니다.

첼리스트 정명화는 동생 정경화, 정명훈과 함께 ‘정 트리오’를 구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현재 대관령 국제음악제 공동 예술감독을 맡아 행사를 이끄는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입니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1997년 영차 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2위에 입상한 후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으며, 호남예술제 출신인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는 프랑스 퉁티보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며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들 트리오는 28일(화) 오후 7시 30분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Music from PyeongChang’ 무대에 함께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환상의 앙상블을 선보입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트리오는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4번 E단조 작품번호 90 동기’와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작품번호 7’ 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각자 독보적인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세 사람이 듀엣, 트리오 등 호흡을 맞춰 다양한 연주를 선보이는 게 이번 공연의 매력입니다. 클래식 애호가들의 뜨거운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光州日報社

2017 PINK RUN

핑크런 광주대회

핑크리본사랑마라톤에서 핑크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5.14.(일요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
기념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런 사무국 (1688-9744)
참가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접수 www.pinkcampaign.com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사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MBC, KBC광주방송, KBS광주방송총국

A MORE BEAUTIFUL WORLD / AMC 20 by 20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